



미 증시, 파월의장 발언 관망심리 등으로 상승폭 축소

미국 증시 리뷰

6 일(월) 미국 증시는 미국채 10 년물 금리가 3.9%대에서 하향 안정화된 것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7 일 파월의장 발언과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 심리 유입되며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 (다우 +0.12%, S&P500 +0.07%, 나스닥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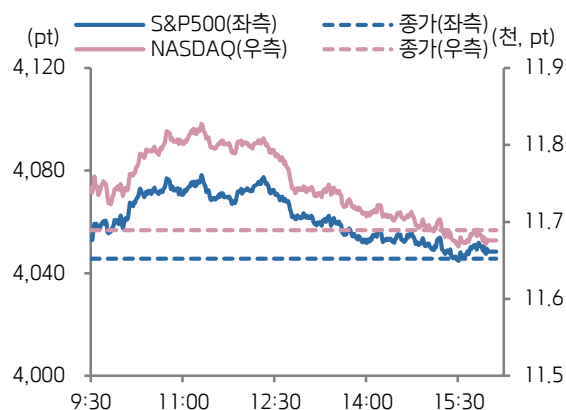
미국 1 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대비 -1.6%(예상 -1.8%, 전월 1.7%) 감소. 운송을 제외한 제조업 수주는 1.2% 증가했지만 보잉 항공기에 대한 신규 계약이 줄어든 영향이 지수 하락을 주도. 1 월 항공기와 군사 품목을 제외한 자본재 수주는 전월대비 0.8% 증가하며 예비치에 부합.

1 월 유로존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예상 0.5%, 전월 -1.7%) 증가, 전년동기 대비 -2.3%(예상 -1.8%, 전월 -2.8%) 기록. 3 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는 -11.1(예상 -5.5, 전월 -8.0)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전월 -10.0에서 -9.3으로 개선되었으나 미래경기에 대한 평가가 전월 -6.0에서 -13.0으로 하락한 영향.

대만 총통이 4월 미국을 방문하여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대만 차이 총통은 4월 초 중미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도 경유할 예정이며 매카시 하원의장과도 만날 예정으로, 2019년 7월 이후 첫 미국 방문. 미-중이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에 이어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소식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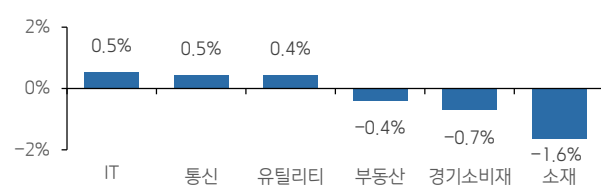
업종별로 IT(+0.5%), 통신(+0.5%), 유틸리티(+0.4%) 업종 강세, 소재(-1.6%), 경기소비재(-0.7%), 부동산(-0.4%) 업종은 강세. 미 국채금리 부담이 완화되며 IT 섹터는 반등에 성공한 반면, 중국 양회에서 목표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인 5%로 제시한 영향으로 소재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 애플(1.85%)은 골드만 삭스에서 제품수요는 둔화되지만 향후 5년간 서비스 부문이 총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을 근거로 투자 의견을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강세. 테슬라(-2.01%)는 1월초 모델 3 및 모델 Y 가격 인하에 이어, 미국내 1분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급형 모델인 모델 S 및 모델 X 가격 인하 단행, 마진 축소 우려로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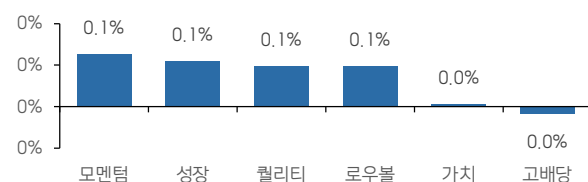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62.62	+1.26%	USD/KRW	1,296.64	-0.35%
코스피 200	320.94	+1.45%	달러 지수	104.27	-0.24%
코스닥	816.51	+1.76%	EUR/USD	1.07	+0.45%
코스닥 150	1,187.20	+2.25%	USD/CNH	6.95	+0.8%
S&P500	4,048.42	+0.07%	USD/JPY	135.92	+0.04%
NASDAQ	11,675.74	-0.11%	채권시장		
다우	33,431.44	+0.12%	국고채 3년	3.767	-2.3bp
VIX	18.61	+0.65%	국고채 10년	3.715	-5.7bp
러셀 2000	1,899.76	-1.48%	미국 국채 2년	4.888	+3.2bp
필라. 반도체	2,994.59	-1.11%	미국 국채 10년	3.958	+0.6bp
다우 운송	14,974.15	-0.92%	미국 국채 30년	3.894	+1.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13.78	+0.44%	WTI	80.53	+1.07%
MSCI 전세계 지수	639.69	+1.34%	브렌트유	86.29	+0.54%
MSCI DM 지수	2,757.97	+1.41%	금	1852.5	-0.11%
MSCI EM 지수	988.03	+0.81%	은	20.98	-0.54%
MSCI 한국 ETF	60.73	+0.21%	구리	408.4	+0.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7.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파월의장 발언 경계심리가 대형주 주가 상단 제약할 가능성 2. 전일 폭등했던 2차전지 대형주들의 기술적인 되돌림 현상 출현 여부 3. 전일 조정을 받았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주 후반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25bp 인상 선호 발언이 위험선호심리를 호전 시켰으나, 시장참여자들은 금주 예정된 파월의장의 상하원 증언(7~8 일), 2월 미국 고용 지표(10 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마주해야하는 상황.

물론 최근 상승하고 있는 3월 FOMC 50bp 인상 확률(현재 30.6%, CME FedWatch)로 미루어 보아,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달전인 2월 FOMC 기자회견때보다 매파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침체의 선행지표인 장단기금리차는 역전된 상태이며(10년물과 2년물 -91bp, 10년물과 3개월물 -90bp), 10년물-2년물간 금리차는 '81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침체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같은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 취약 등을 감안 시 2월 비농업부문 고용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진 모습.

하지만 2월 중 물가, 고용 또는 연준 인사들 발언을 놓고 시장이 예상과 다른 결과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주 예정된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장참여자들의 단기 포지션 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격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음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리오프닝주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 반도체주 강세, 에코프로비엠(+19.2%) 등 2차전지주 급등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1.8%). 3

금일에는 미국 증시 흐름과 유사하게, 최근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7일 파월의장 발언(현지시간 오전 10시)에 대한 경계심리 등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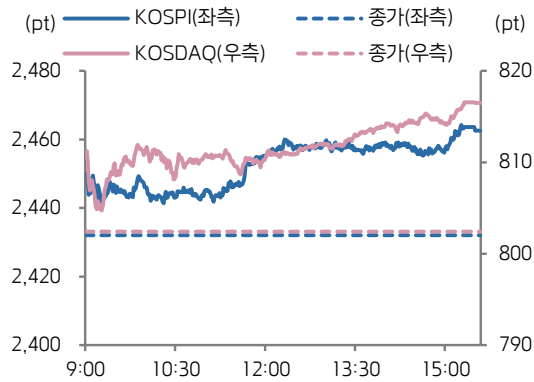
한편, 지난 2월에 이어 국내 양시장 중 코스닥 강세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여타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봐도 코스닥은 매크로 환경에 크게 개의치 않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3월 이후 코스닥 +3.1% vs 코스피 +2.1%, S&P500 +2.0%, 나스닥 +1.9%).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배경은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인과 기관 매매 강도 약화가 역설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상 증시 영향력이 높아진 데서 기인. 그 과정에서 2차전지, 폐배터리, AI 및 GPT 등 특정 테마주들이 개인 수급에 힘입어 바텀업 단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배경.

또한 코스닥의 과열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단순 코스닥 주가 상 상대강도지수(RSI, 70 이상 과매수, 30 이하 과매도)가 70.05pt 에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지수 차제의 과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비율도 '15년 바이오 버블, 17년말~18년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과거 코스닥 과열 국면 당시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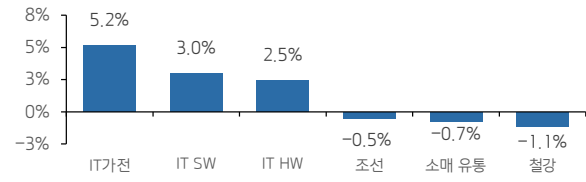
다만 현재 코스닥 강세는 2차전지와 같은 특정 업종에 편중된 상황이며, 전일 일부 2차전지 대형주들이 장 초반부터 폭등한 이후 갭 상승세를 연출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에는 이들 위주의 차익실현 물량과 갭 메우기가 출현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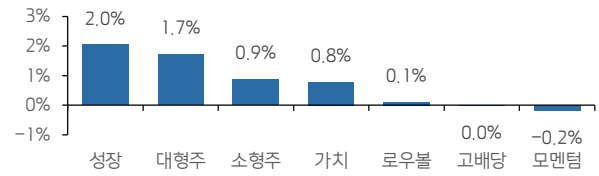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